

# 가족갈등과 자기통제가 초기 청소년의

##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손 미 영(충북대 석사)·김 영 희(충북대 교수)

### I. 서론

청소년기는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한사람의 독립적인 존재로 사회 속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립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준거 틀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하루 활동시간 중 거의 모든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생활은 청소년기의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적응은 청소년기뿐 아니라 그들이 성장하여 한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과 같은 특유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반되는 수많은 갈등과 스트레스 요인은 청소년의 적응에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김영희·박희경·조주영, 2004). 특히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서의 불만과 어려움의 호소는 학교라는 생활영역에서 개인의 욕구가 학교 내 환경과 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갈등과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학교생활 부적응 현상으로 표출된다(이경은, 1998). 학교는 가족에서 사회로 생활범위가 확대되는 환경으로서,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이나 불만족을 호소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에 관한 초기연구들은 주로 성과 연령, 경제수준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청소년의 학교부적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정유진, 2000). 성에 따른 학교부적응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세레나, 2007; 이혜령, 2000; 홍현화, 1997).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학교부적응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교적응 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와(이진숙, 2002)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교적응 정도가 낮다는 상반된 연구결과가(추미애·박아청, 2006) 보고되고 있다.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도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는 곧 청소년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유선경, 2007; 최지은·신용주, 2003).

이렇게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연구자들은 학교부적응이 단순히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의한 영향보다는 이러한 변인들과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즉 청소년이 나타내는 문제 행동과 이로 인한 부적응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성차를 반영함과 동시에 가정의 상황에 기초하여 나타난다는 것이다(김혜영, 2003; 이혜령, 2000). 가정은 청소년이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여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환경으로 청소년의 부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김혜진, 2007; 이향선, 2000). Barber와 Erickson(2001)은 가정불화로 인한 가족갈등은 청소년들의 발달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이는 곧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가족간의 갈등이 청소년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가족간의 갈등을 단일적인 차원으로 하여 그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점차 가족간의 갈등의 요인에 따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차이가 있음을 발견해 내면서 부모간 갈등(Brody, Arias, & Fincham, 1996)과 부모-자녀간 갈등(Buehler, Anthony & Pemberton, 1997)으로 세분화하여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게 되었다. 가족갈등 중 부모간의 갈등은 가족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며, 청소년 자녀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어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해수(2004)는 자녀가 부부갈등을 자주 목격하고, 갈등을 심각한 것으로 지각할수록 부정적인 심리증상을 보이며, 부부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부모는 가족 내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하여 자녀의 문제행동과 부적응 현상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간의 갈등빈도가 높을수록 자녀가 많은 문제행동과 부적응을 보인다는 연구결과(Grych & Fincham, 1990)도 보고되고 있어 부모간 갈등이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간의 갈등도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Barber, 1994; Farber & Long, 1990; Harold, Shelton, Goeke-Morey & Cummings, 2004). 이진숙(2000)은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고 부모-자녀 관계가 적대적일수록 학교 적응과 부적 상관에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조운정과 김정신(2000)은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은 가족간의 의사소통과 부적 상관에 있음을 밝혀내면서, 가족 내에서의 따뜻한 대화나 애정적 표현의 증진을 강조하였다. 많은 청소년들이 정체성의 혼란, 우울, 자살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부분적으로 갈등적인 부모-자녀관계의 결과임이 지적되고 있다(Barber, 1994).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부모간 갈등강도, 갈등해결력, 갈등빈도 등과 같은 부모간의 갈등과 부모-자녀간의 신뢰감, 적대감, 의사소통으로 표출되는 부모-자녀간 갈등이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은 가족환경에 의해 독립적으로 영향을 받기 보다는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적응에 가장 필요한 능력 중 하나로 자기통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송명자, 1995; Raffaelli, Crockett, & Shen, 2005). 자기통제는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행동과 그렇지 못한 행동을 구별하여 자신의 행동, 사고 및 감정을 다루는 능력으로, 자기통제가 높은 청소년은 충동적인 행동은 자제하고 사려 깊게 행동함으로써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에 있어 원만한 결과를 보인다(이경남, 2004). 반면, 자기통제가 낮은 경우, 인지적 과제해결에 문제를 가져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고 대인관계에서도 충동적이고 공격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행동문제로 인해 부적응을 초래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송윤심, 2007).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은 자신과 관련된 정서나 행동 등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발되는 것으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통제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갈등, 자기통제는 초기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이 밝혀졌지만, 이 세 가지 변인들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학교부적응에 관련된 기존 연구는 학교 부적응을 단순히 단일화하여 살펴본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문인식, 2002). 그러나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문적인 치료적 개입을 위해서는 이를 보다 다차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최근에는 학교부적응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여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 문은식(2002)은 학교부적응을 수업참여도, 사회적 적응행동, 정의적 적응행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추미애와 박아청(2006)은 학교환경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생활적응 5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김용래(1993)는 학교수업적응, 학교생활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환경적응 5가지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들의 공통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학교적응에 대한 요인이 교사, 수업, 규칙, 친구 등으로 다차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 가족갈등, 자기통제가 초기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학교부적응 유형(교사부적응, 수업부적응, 규칙부적응, 친구부적응)에 따라 살펴 보아 청소년이 원활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고, 부모 및 교사교육프로그램이나 청소년과 가족상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청주시에 소재한 3개의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으로 하였다. 자료는 질문지 조사방법으로 수집하였으며, 질문지는 각 학교에 보내져 수업시간을 통해 담당 교사가 설문을 지도, 시행한 후 회수한 것을 연구자가 다시 수거하는 방식을 택했다. 총 750부의 질문지가 배부되고 738(98.4%)부가 수거되었으나 질문지 내용에 불성실한 응답을 한 자료 34부, 질문지 내용에 대한 응답 전체가 3개 이상 누락된 자료 14부,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가족 28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6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

#### 1) 부모간 갈등

부모간 갈등은 Gryche 등(1992)이 개발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CPIC)를 사용하였다. 이는 이정덕과 권영옥(1997)에 의해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 타당도가 검증되었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본래 총 48문항으로 갈등빈도, 갈등강도, 갈등내용, 갈등해결, 갈등위협, 자기비난, 삼각관계 등 7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적응과 관련된 요인으로 밝혀진 갈등빈도, 갈등강도, 갈등해결 등 3개 요인만을 추출하여 요인 부하량이 낮은 2개 문항을 제외하고 총 1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 2) 부모-자녀간 갈등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와 Greenberg(1987)가 개발한 IPPA-R(The Inventory of Parents and Peer Attachment Revised)을 정선혜(2000)가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3개의 하위척도 즉, 신뢰감, 적대감,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 부하량이 낮은 5문항을 제외하고 총 20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 3) 자기통제

자기통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Tangney와 동료들(2004)이 제작한 자기통제척도(Self-Control Scale)를 번안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본래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 부하량이 낮은 2문항을 제외하고 총 34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 4) 학교 부적응

학교부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임정순(1993), 송미원(1999) 등이 제작한 검사 문항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척도 즉, 교사에 대한 부적응, 수업에 대한 부적응, 규칙에 대한 부적응, 친구에 대한 부적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 3. 자료분석

사회 인구학적 변인, 부부갈등, 부모-자녀 간 갈등, 자기통제가 초기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1>와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변 인	구 분	빈도(%)	변 인	구 분	빈도(%)
성 별	남 자	257(38.8)	학 년	1학년	315(47.6)
	여 자	405(61.2)		2학년	347(52.4)
	계	662(100.0)		계	662(100.0)
출생순위	첫 째	239(36.1)	가족형태	핵가족	598(90.3)
	둘 째	327(49.4)		확대가족	64(9.7)
	셋째이상	50(7.6)		계	662(100.0)
	외 동	40(6.0)	경제수준	상	63(9.5)
	기 타	6(0.9)		중	569(86.0)
계	662(100.0)	하		30(4.5)	
부 연령	40세 이하	104(15.7)	모 연령	40세 이하	270(40.8)
	41세~45세	322(48.6)		41세~45세	314(47.4)
	46세 이상	236(35.6)		46세 이상	78(11.8)
	계	662(100.0)		계	762(100.0)
부 학력	중졸 이하	9(1.4)	모 학력	중졸 이하	13(2.0)
	고졸 이하	325(49.1)		고졸 이하	443(66.9)
	대졸 이상	328(49.5)		대졸 이상	206(31.1)
	계	662(100.0)		계	662(100.0)
부 직업	전문직/공무원	155(23.4)	모 직업	전문직/공무원	87(13.1)
	사무직	220(33.2)		사무직	125(18.9)
	상업/서비스업	178(26.9)		상업/서비스업	131(19.8)
	생산/기술/서비스	107(14.2)		생산/기술/노무직	45(6.8)
	무 직	9(1.4)		무직/주부	274(41.4)
	계	662(100.0)		계	662(100.0)

#### 2.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간 갈등, 부모-자녀간 갈등, 자기통제가 초기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간 갈등, 부모-자녀간 갈등, 자기통제 및 초기 청소년의 학교부적응 간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회귀분석에서 VIF값을 살펴본 결과 1.00에서 2.74의 범위로 3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어 각 변인들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개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였다.



적응을 15.5% 설명해주고 있다. 즉, 2학년이 1학년보다,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갈등강도가 높을수록, 부모갈등해결력이 낮을수록 교사부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Model 2에서는 Model 1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경제수준은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초기 청소년의 교사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투입한 부모갈등의 하위변인인 부모갈등강도와 갈등해결은 초기 청소년의 교사부적응의 전체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Model 3에서는 학년( $\beta=.20, p<.001$ ), 부모갈등강도( $\beta=.15, p<.01$ ), 부모-자녀간 신뢰감( $\beta=-.12, p<.05$ ), 부모-자녀간 적대감( $\beta=.17, p<.001$ ),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beta=-.09, p<.05$ )이 초기 청소년의 교사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델은 초기 청소년의 교사부적응을 22.1% 설명해주고 있다. 즉, 2학년이 1학년보다, 부모갈등 강도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간 신뢰감이 낮을수록, 부모-자녀간 적대감이 높을수록,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초기 청소년의 교사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는 Model 2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부모갈등해결력은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초기 청소년의 교사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투입한 부모-자녀간 갈등 중 부모-자녀간 신뢰감, 적대감, 의사소통은 초기 청소년의 교사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들은 초기 청소년의 교사부적응의 전체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Model 4에서는 학년( $\beta=.17, p<.001$ ), 부모-자녀간 신뢰감( $\beta=-.10, p<.05$ )과 적대감( $\beta=.14, p<.01$ ),

<표 3> 사회 인구학적 변인, 부모간 갈등, 부모-자녀간 갈등, 자기통제가 초기 청소년의 교사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표준화된 $\beta$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교사 부적응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 별	-.01	-.02	-.05	-.06
		학 년	.25 ***	.23 ***	.20 ***	.17 ***
		경제수준	-.08 *	-.02	-.01	.01
		부모간 갈등				
		갈등강도		.23 ***	.15 **	.10
		갈등해결		-.13 **	-.04	-.06
		갈등빈도		-.02	-.06	-.07
		부모-자녀간 갈등				
		신뢰감			-.12 *	-.10 *
		적대감			.17 ***	.14 **
		의사소통			-.09 *	-.07
		자기통제				-.22 ***
		$\Delta R^2$		.085 ***	.066 ***	.037 ***
		$R^2$	.070	.155	.221	.258
	F	16.57	20.01	20.59	22.68	

\* $p<.05$ . \*\* $p<.01$ . \*\*\* $p<.001$ .

자기통제( $\beta=-.22, p<.001$ )가 초기 청소년의 교사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델은 초기 청소년의 교사부적응을 25.8% 설명해주고 있다. 즉, 2학년이 1학년보다, 부모-자녀간 신뢰감이 낮을수록, 부모자녀간 적대감이 높을수록,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초기 청소년의 교사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4에서는 Model 3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부모갈등강도는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초기 청소년의 교사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투입한 자기통제는 초기 청소년의 교사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은 초기 청소년의 교사부적응의 전체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초기 청소년의 교사부적응에 대한 각 변인의 변량을 살펴보면, 이는 각 변인들이 초기 청소년의 교사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들 중에서 초기 청소년의 교사부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자기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간 갈등, 부모-자녀간 갈등, 자기통제가 초기 청소년의 수업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기 청소년의 수업부적응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Model 1에서 성별( $\beta=.17, p<.001$ )과 학년( $\beta=.11, p<.01$ ), 경제수준( $\beta=-.15, p<.001$ ) 모두 초기 청소년의 수업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델은 초기 청소년의 수업부적응을 7.3% 설명해주고 있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중학교 2학년이 1학년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수업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는 성별( $\beta=.15, p<.001$ ), 학년( $\beta=.09, p<.05$ ), 경제수준( $\beta=-.09, p<.05$ ), 부모갈등강도( $\beta=.18, p<.01$ )가 초기 청소년의 수업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초기 청소년의 수업부적응을 14.2% 설명해주고 있다.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중학교 1학년보다 2학년이,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갈등강도가 높을수록 수업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는 성별( $\beta=.13, p<.001$ ), 경제수준( $\beta=-.08, p<.05$ ), 부모갈등강도( $\beta=.11, p<.05$ ), 부모-자녀간 신뢰감( $\beta=-.14, p<.01$ ),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beta=-.14, p<.01$ )이 초기 청소년의 수업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수업부적응을 20.0% 설명해주고 있다.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갈등강도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간 신뢰감이 낮을수록,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초기 청소년의 수업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 투입한 부모-자녀간 갈등 중 부모-자녀간 신뢰감과 의사소통은 초기 청소년의 수업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은 초기 청소년의 수업부적응의 전체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Model 4에서는 성별( $\beta=.10, p<.01$ ), 부모-자녀간 신뢰감( $\beta=-.10, p<.05$ ), 자기통제력( $\beta=-.46, p<.001$ )이 초기 청소년의 수업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은 수업부적응을 36.2% 설명해주고 있다.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부모 자녀간 신뢰감이 낮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초기 청소년의 수업부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Model 3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은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초기 청소년의



수업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투입한 자기 통제력은 초기 청소년의 수업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은 초기 청소년의 수업부적응의 전체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초기 청소년의 수업부적응에 대한 각 변인의 변량을 살펴보면, 모든 변인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들 중에서 초기 청소년의 수업부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자기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간 갈등, 부모-자녀간 갈등, 자기통제가 초기 청소년의 수업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표준화된 $\beta$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수업 부적응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 별	.17 ***	.15 ***	.13 ***	.10 **
	학 년	.11 **	.09 *	.06	.01
	경제수준	-.15 ***	-.09 *	-.08 *	-.05
	부모간 갈등				
	갈등강도		.18 **	.11 *	.02
	갈등해결		-.10	-.01	-.04
	갈등빈도		.02	.01	.07
	부모-자녀간 갈등				
	신뢰감			-.14 **	-.10 *
	적대감			.07	.02
	의사소통			-.14 **	-.08
	자기통제				-.46 ***
	$\Delta R^2$		.068 ***	.061 ***	.159 ***
	$R^2$	.073	.142	.200	.362
F	17.37	18.04	18.11	36.97	

\* $p < .05$ . \*\* $p < .01$ . \*\*\* $p < .001$ .

### 3)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간 갈등, 부모-자녀간 갈등, 자기통제가 초기 청소년의 규칙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기 청소년의 규칙부적응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Model 1에서는 학년( $\beta = .24$ ,  $p < .001$ )과 경제수준( $\beta = -.08$ ,  $p < .05$ )이 초기 청소년의 규칙부적응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학년이 1학년보다,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규칙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간 갈등을 추가한 Model 2에서는 학년( $\beta = .22$ ,  $p < .001$ )과 부모간 갈등강도( $\beta = .19$ ,  $p < .001$ )가 초기 청소년의 규칙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초기 청소년의 규칙부적응을 11.3% 설명해주고 있다. 즉, 2학년이 1학년보다 규칙부적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갈등강도가 높을수록 규칙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던 경제수준은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규칙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투입한 부모간 갈등 중 갈등강도는 초기 청소년의 규칙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은 초기 청소년의 규칙부적응의 전체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Model 3에서는 학년( $\beta=.20, p<.001$ ), 부모간 갈등강도( $\beta=.13, p<.05$ ), 부모-자녀간 적대감( $\beta=.11, p<.05$ )이 초기 청소년의 규칙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초기 청소년의 규칙부적응을 14.1% 설명해주고 있다. 즉, 1학년보다 2학년이, 부모간 갈등강도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간 적대감이 높을수록 규칙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4에서는 학년( $\beta=.16, p<.001$ ), 자기통제( $\beta=-.35, p<.001$ )가 규칙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델은 초기 청소년의 규칙부적응을 23.7% 설명해주고 있다. 즉, 중학교 2학년이 1학년보다 규칙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규칙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4에서는 Model 3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부부갈등강도와 부모-자녀간 적대감은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초기 청소년의 규칙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투입한 자기통제는 초기 청소년의 규칙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들은 초기 청소년의 규칙부적응의 전체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초기 청소년의 규칙부적응에 대한 각 변인의 변량을 살펴보면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들 중에서 초기 청소년의 규칙부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자기 통제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간 갈등, 부모-자녀간 갈등, 자기통제가 초기 청소년의 규칙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표준화된 $\beta$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규칙 부적응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 별	.01	-.01	-.02	-.04
		학 년	.24 ***	.22 ***	.20 ***	.16 ***
		경제수준	-.08 *	-.03	-.03	-.01
		부모간 갈등				
		갈등강도		.19 ***	.13 *	.06
		갈등해결		.02	.08	.05
		갈등빈도		.06	.05	.03
		부모-자녀간 갈등				
		신뢰감			-.06	-.02
		적대감			.11 *	.07
		의사소통			-.07	-.03
		자기통제				-.35 ***
		$\Delta R^2$		.047 ***	.028 ***	.096 ***
	$R^2$	.066	.113	.141	.237	
	F	15.59	13.94	11.92	20.22	

\* $p<.05$ . \*\* $p<.01$ . \*\*\* $p<.001$ .

**4)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간 갈등, 부모-자녀간 갈등, 자기통제가 초기 청소년의 친구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기 청소년의 친구부적응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는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Model 1에서 성별과 학년 및 경제수준이 초기 청소년의 친구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간 갈등을 추가한 Model 2에서는 부모간 갈등강도( $\beta=.13, p<.05$ )와 부모간 갈등해결( $\beta=-.23, p<.001$ )이 초기 청소년의 친구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친구부적응을 7.8% 설명해주고 있다. 즉,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간 갈등강도가 높을수록, 부모간 갈등해결력이 낮을수록 친구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는 성별( $\beta=-.09, p<.01$ ), 부모간 갈등해결( $\beta=-.17, p<.01$ ), 부모-자녀간 적대감( $\beta=.17, p<.001$ )이 친구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청소년의 친구부적응을 11.5% 설명해주고 있다. Model 3에서는 Model 1과 Model 2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성별이 친구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Model 2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부모갈등강도는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초기 청소년의 친구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4에서는 성별( $\beta=-.10, p<.05$ )과 부모간 갈등해결( $\beta=-.18, p<.001$ ), 부모-자녀간 적대감( $\beta=.16, p<.001$ ), 자기통제( $\beta=-.13, p<.01$ )가 초기 청소년의 친구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친구부적응을 12.9% 설명해주고 있다. 즉,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부모간 갈등해결력이 낮을수록, 부모-자녀간 적대감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친구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간 갈등, 부모-자녀간 갈등, 자기통제가 초기 청소년의 친구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표준화된 $\beta$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친구 부적응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 별	-.06	-.07	-.09 *	-.10 *
	학 년	.06	.04	.02	.01
	경제수준	-.08	-.03	-.02	-.02
	부모간 갈등				
	갈등강도		.13 *	.06	.03
	갈등해결		-.23 ***	-.17 **	-.18 ***
	갈등빈도		-.10	-.10	-.11
	부모-자녀간 갈등				
	신뢰감			-.02	-.01
	적대감			.17 ***	.16 **
	의사소통			-.08	-.06
	자기통제				
					-.13 **
	$\Delta R^2$			.068 ***	.035 ***
$R^2$		.010	.078	.115	.129
F		2.33	9.24	9.46	9.61

\* $p<.05$ . \*\* $p<.01$ . \*\*\* $p<.001$ .

나타났다. Model 4에서 투입한 자기통제는 초기 청소년의 친구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기 청소년의 친구부적응에 대한 전체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이와 같이 친구부적응에 대한 각 변인의 변량을 살펴보면, 성별과 학년 및 경제적 수준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들 중에서 초기 청소년의 친구부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부모간 갈등이었으며, 각 하위요인과 초기 청소년의 친구부적응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부모간 갈등해결력이 청소년의 친구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하위요인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 1. 요약 및 논의

첫째, 초기 청소년의 교사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년, 경제수준, 부모간 갈등강도, 부모간 갈등해결, 부모-자녀간 신뢰감, 부모-자녀간 적대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자기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2학년이 1학년보다,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간의 갈등강도가 높을수록, 부모간 갈등해결력이 낮을수록, 부모-자녀간 신뢰감이 낮을수록, 부모-자녀간 적대감이 높을수록,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교사부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초기 청소년의 수업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학년, 경제수준, 부모간 갈등강도, 부모-자녀간 신뢰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자기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중학교 1학년보다 2학년이,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부모간의 갈등강도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간 신뢰감이 낮을수록,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초기 청소년의 수업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기 청소년의 규칙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년, 경제수준, 부모간 갈등강도, 부모-자녀간 적대감, 자기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 2학년이 1학년보다,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부모간 갈등강도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간 적대감이 높을수록,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초기 청소년의 규칙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초기 청소년의 친구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간 갈등강도, 부모간 갈등해결, 부모-자녀간 적대감, 자기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간 갈등강도가 높을수록, 부모간 갈등해결이 낮을수록, 부모-자녀간 적대감이 높을수록,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초기 청소년의 친구부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의 교사부적응은 중학생의 학년, 경제수준, 부모간 갈등, 부모-자녀간 갈등, 자기통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Model 3에서는 Model 2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부모간 갈등해결이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초기 청소년의 교사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투입한 부모-자녀간 갈등 중 신뢰감과 적대감은 초기 청소년의 교사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odel 4에서는 Model 3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부모간 갈등강도가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초기 청소년의 교사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투입한 자기통제는 초기 청소년의 교사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은 초기 청소년의 교사부적응의 전체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교사부적응이 부모간 갈등강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에서 부부간의 불화가 잦고 갈등강도가 높을수록, 가족의 분위기가 적대적이고 가족간에 화합이 되지 않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김선애 · 김준호, 1995; 정유미 · 김득성, 2000; Barber, 1994)에서 일관성 있게 보고된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부모-자녀간 신뢰감과 적대감도 초기 청소년의 교사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관계가 적대적이거나 부모와 낮은 신뢰감을 형성할 경우 학업적인 면에서 성취력이 낮고 부족한 사회적 관계형성으로 인해 부적응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부모와의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에 비해 비행또래집단에 이끌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한 선행연구(Harold & Shelton, 2004)와 일치한다. 그 외 선행연구(배숙진, 1998; 최지은 · 신용주, 2003)에서도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 부모-자녀관계 개선프로그램이나 이와 관련된 부모 성장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의 외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교사와의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 학교생활 어려움의 정도도 많이 다를 것으로 사료됨으로 교사와 청소년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인간관계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사의 지지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이정님, 2004)는 교사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적응에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충분한 상담자로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걱정, 불안, 욕구불만 등을 적절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구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교사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인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초기 청소년의 수업부적응은 중학생의 성별, 부모-자녀간 갈등, 자기통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수업부적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경우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점수가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난 유효현(200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Model 3에서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수업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한 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은 중학생의 교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수업참여, 교칙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임성운, 2005)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개방적이고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가족의 청소년들보다 더 좋은 적응 상태를 보였다는 선행연구(전귀연 · 최보가, 1995; 남순식, 2002)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 사이에 기능적인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 갈등을 줄임으로서 중학생의 학교부적응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부모와의 기능적 의사소통은 의사결정, 정보나 충고, 지도 등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랑과 신뢰, 관심, 격려 등은 정서적인 지원으로 지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을 줄이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중학생과 부모와의 기능적 의사소통 능력을 높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Model 4에서 투입한 자기통제는 초기 청소년의 수업부적응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변인은 초기 청소년의 수업부적응의 전체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통제가 행동문제의 중요한 완화요인이라고 밝힌 선행연구(김선희·김경연, 1999)와 일치하는 것으로 자기통제가 청소년의 행동문제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적응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성인기의 성공적인 삶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셋째, 초기 청소년의 규칙부적응은 중학생의 학년, 자기통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학교규칙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보고한 연구결과(이진숙, 2002)와 일치하며, 자기통제가 규칙부적응에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유선경, 2007)와 맥을 같이한다. 이숙영(1997)은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은 권위적인 인물이나 교칙에 대해 반항심이 많고 자제력이 약하며 등교대만과 교칙위반으로 반복되는 처벌을 받아 교사와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이로 인하여 학업중단을 촉발할 수 있다고 하여 규칙부적응이 학업중단의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시 위주의 틀에 박힌 교육풍토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되며 공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효율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통제소재성향은 일련의 교육 혹은 훈련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전효경, 2002)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제소재 성향을 키워줄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학교 내 상담자의 전문적인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초기 청소년의 친구부적응은 Model 1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학교부적응의 다른 하위변인인 교사부적응, 수업부적응, 규칙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유의하지 않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친구는 성별이나 학년의 수준에서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비슷하며 사회적으로 동일시되어 함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친구부적응은 부모간 갈등, 부모-자녀간 갈등, 자기통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부모간 갈등해결력이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관계에서 각자의 기대와 욕구를 항상 만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부모관계에서도 갈등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부모가 이를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해결한다면 청소년의 대인관계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친구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청소년들이 가족 내에서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또래관계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자기통제도 초기 청소년의 친구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통제가 약한 경우 충동적이고 문제행동 성향을 가진 친구들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전병세, 1991)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통제가 부족할수록 인지능력이나 대인관계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친구들로부터 자신이 지지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거부당하는 느낌을 겪게 되어 친구부적응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갈등, 자기통제가 초기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초기 청소년의 교사부적응, 수업부적응, 규칙부적응에는 자기통제가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초기 청소년의 친구부적응에는 부모간 갈등해결력이 가장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학교교육제도와 같은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고 과도한 경쟁에서 오는 좌절감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개인내적변인인 자기통제가 청소년의 일탈과 비행과 같은 부적응을 감소시키는 강력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학교부적응의 하위요인인 친구부적응은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대인기술능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내적변인인 자기통제에 비해 부모간 갈등해결력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간 갈등상황의 해결여부는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가족 내에서 필수불가결하게 겪게 되는 갈등을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자녀에게 문제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모델이 되어 친구부적응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적응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론은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을 감소시키기 위해 청소년의 부적응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상이 청주시에 국한되어 있어 지역의 문화적 배경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집 대상에 대한 한계가 있다. 또한 중학교 1, 2학년만을 대상에 포함시켜 다른 연령의 청소년들까지 확대하여 일반화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연령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확대하여 가족갈등과 자기통제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대상에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가족은 제외시켰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가족구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가족구조의 차이에서 오는 학교부적응 정도를 좀 더 면밀히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손가족과 한부모 가족을 포함하여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학교부적응이 어느 한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 보다는 전 영역에 걸쳐서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가족, 학교와 더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학교부적응에 대한 개입과 관리, 중재를 할 수 있는 학교 내에서의 학교사회사업가의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에게 지각되는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간 갈등의 특성에 근거하여 가족갈등수준을 측정하였다. 왜냐하면 가족갈등에 대한 초기 청소년의 지각과 이해수준이 학교부적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이 보고하는 가족갈등수준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는 생활여건상 가족갈등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갈등특성이나 정도를 과소평가하게 되고, 실제

가족갈등의 양상과는 다르게 평가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가족갈등에 대한 청소년의 자기보고와 더불어 부모의 직접적인 평가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수집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본 연구는 가족환경 변인인 가족갈등을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간 갈등으로 나누어 학교부적응(교사부적응, 수업부적응, 규칙부적응, 친구부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기통제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초기 청소년에게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곳이 아닌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어 학교부적응을 탐색함에 앞서 학교가 본질적으로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가 교육목적 달성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왜곡되고 편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러한 환경에서의 부적응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더불어 학교가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여부를 탐색하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강지훈(2005).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수란(2004). 청소년의 학교적응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1), 1-26.
- 권순용·양연숙(2007). 청소년의 심리정서상태, 학업동기, 가족기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3), 115-129.
- 권영옥·이정덕(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당도 연구. 아동학회지, 18, 65-80.
- 김선애·김준호(1995). 부모의 통제유형과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동아학논총, 16(2).
- 김선희·김경연(1999).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55-166.
- 김세레나(2007).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박희경·조주영(2004). 가족간의 갈등과 인성특성이 청소년의 내면적·외면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8(2), 88-95.
- 김혜영(2003). 가족기능과 대인관계 및 청소년의 부적응.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진(2007). 어머니의 양육이 모-자녀 갈등을 매개로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에 미치는 영향: 애착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순식(2002). 중학생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학교생활적응.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은식(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관련변인의 탐색적 고찰. 충남대학교 교육발전논총, 23(1), 153-167.



- 문인식(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숙진(1998). 청소년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개념, 학교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미원(1999). 초등학교생의 자아개념 및 불안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윤심(2007).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학령기 아동의 자기통제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선경(2007). 내적 통제소재와 가족관련 변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효현(2002). 자기효능감과 수업동기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탐색. 홍익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10, 15-23.
- 이경남(2001).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2), 97-110.
- 이경은(1998). 학교생활 부적응 유형과 요인에 따른 학교사회사업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숙영(2000). 중학생의 진로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2002).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25-39.
- 이향선(2000). 부부갈등이 청소년기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수도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령(2000). 고등학생의 가정환경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성운(2005). 중학생이 지각한 가정환경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귀연·최보가(1994). 청소년기 가족문제. 한국청소년개발원.
- 전병세(1991). 청소년 친구집단과 비행간의 상관성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효경(2002). 학교적응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여중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표현 및 학습내적통제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진(2000).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의 관련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은·신용주(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와 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27-39.
- 추미애·박아청(2006). 초등학교생의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동아교육, 15(2), 271-288.
- 홍현화(1997).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 아동의 학교적응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Aydin, B., & Oztuncu, F.(2001). Examination of adolescents ' negative thought, depressive mood, family environment. *Adolescence*, 36, 77-83.

- Baber, B. K.(1994). Family, personality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69-79.
- Barber, B. K., & Erickson, L. D.(2001). Adolescent social initiative: Antecedents in the ecology of social connec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6*, 326-354.
- Brody, G. H., Arias, U., & Fincham, F. D.(1996). Linking marital and child attributions to family proces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4*, 498-421.
- Buehler, C., Anthony, C., Krishnakumar, A., Stone, G., Gerard, J., & Pemberton, S.(1997). Interparental conflict and youth problem behavior: A meta analysi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6*, 233-247.
- Calzada, E. J., & Eyberg, S. M.(2002). Self-reported parenting practices in Dominican and Puerto Rican mother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3)*, 354-363.
- Davies, P. T., & Cummings, E. M.(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387-411.
-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Guthrie, I. K., Murphy, B. C., & Reiser, M.(1999). Parental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longitudinal relations to quality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0(2)*, 513-534.
- Farber, R. L., & Long, L.(1991). Children in context: The role of the family in child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813-820.
- Gonzales, N. A., Tein, J., Sandler, I. N., & Friedman, R. J.(2001). On the limits of coping : Interaction between stress and coping for inner-city.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6*, 372- 395.
- Grych, J. H. & Fincham, F. D.(1990).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Testing the mediational role of appraisals in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71(6)*, 1648-1652.
- Grych, J. H. & Fincham, F. D.(2001).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old, G. T., Shelton, K. H., Goeke-Morey, M. C., & Cummings, M.(2004). Marital conflict, child emotional security about family relationship and child adjustment. *Social Development, 13(3)*, 350-376.
- Raffaelli, M., Crockett, L. J., & Shen, Y.(2005). Developmental stability and change in self-regulation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6*, 54-75.
- Tangney, J. P., Baumeister, R. F., & Bone, A. L.(2004).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72(2)*, 271-322.
- Wills, T. A., & Stoolmiller, M.(2002). The role of self-control in early escalation of substance use: A time-varying analysi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 986-997.
- Windle, M.(1992). A longitudinal study of stress buffering for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3)*, 522-529.

## 가족갈등과 자기통제가 초기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어 성 연(중앙대학교 조교수)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우리사회의 중요 쟁점의 중심에 있어왔습니다. 학교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잠재력과 지적 능력을 개발하여 미래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준비를 위한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보고가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과중심의 입시교육과 개개인의 자율성과 적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화된 교육으로 학습 부진아, 학교 공포증, 등교거부, 수업포기, 무단결석, 소외감, 불안감, 행동장애, 기출, 심리적인 문제 등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도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중도 탈락자 수는 한해 총 67,000명으로 보고 된 바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증가하는 청소년들의 자살 역시 학교부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보고 등을 고려할 때 제안된 연구의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여겨집니다.

특히 학교 부적응의 문제는 학생,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환경, 등의 다양한 환경 아래의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좀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환경에서의 부모-대-부모 그리고 부모-대-자녀의 상호작용 그리고 자기통제를 들어 학교 부적응을 설명하고자 하는 발표된 연구의 접근은 매우 가치 있는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안 된 연구에서는 학교 부적응을 교사부적응, 수업부적응, 규칙적응 그리고 친구부적응의 4가지의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 하였는데, 보다 정확한 학교 부적응의 개념화를 위하여 Multi-trait을 적용한 것으로 매우 이상적인 접근방법이라 여겨집니다. 각각의 하위 영역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모델 검증들은 가정환경에서의 갈등상황이 학교 부적응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을 중재와 예방은 학생 개인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부적응 학생 뒤에 있는 문제부모에 대한 치료적, 예방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부적응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부모의 관계개선이나 건설적인 갈등해결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의 필요성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결과는 개인내적변인인 자기통제는 모든 모델에서 청소년의 부적응을 감소시키는 완충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환경에서의 갈등의 경험으로부터의 부정적 영향을 학교환경에서의 인성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자기통제 능력을 신장시킴으로써 중재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각 학교에서의 적절한 사회적 개입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가족복지적 아동복지적 서비스의

요구를 명확히 표출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사, 가정복지사, 가족생활교육사, 아동상담사, 가족상담사, 등의 학교현장으로의 적극적 개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서비스 전달체제의 개발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제안된 모델만으로도 매우 훌륭한 결과이며 좋은 논문으로 발전 될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해야만 한다면 아래와 같은 시족을 추가합니다. 친구부적응 모델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설명력이 크지 않습니다. 설명력이 증가를 위하여:

- 4가지 하위 변인을 하나의 잠재변인으로 구성하여 모델을 테스트의 시도
- Exogeneous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모델에 추가하여 시도 (예로, 부부 갈등과 부모-자녀갈등과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모델구성에 반영)
- 학교부적응에 관한 Proxy-variable(예로, 인지된 학업성취수준)이나 기타 다른 부모-자녀 갈등 변인들(예로, 인지된 부모의 간섭,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만족도) 모델에 추가를 시도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